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운영위원 및 실무자 신년보고

- 조광 원장님께서 서울시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되어 겸직이 안되는 바, 연구원 원장직을 박하섭 前 전주대 부총장님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직에는 홍성덕 現 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원 운영위원과 실무자들이 모여 신년보고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연구원의 사업진행방향과 제반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서로 간에 인사를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직과 부원장직을 수락하신 박하섭 원장님과 홍성덕 부원장님께서 연구원의 큰 힘이 되주시리라 믿습니다.



○ 2015년 1차 운영위원회

- 2015년 1차 운영위원회가 1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홍성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건우·한명수·최우영·하태진·이충규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지역 회원 신년하례회 개최 건이었습니다. 시간은 2015.01.30. (금) 18시 30분으로, 장소는 전주대 평생교육원 근처 옛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15년 기부금 영수증 발송

- 한국고전문학연구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소정의 선물로 연구원 황지호 회원이 저작한 '잠수함 속 토끼' 라는 도서와 2014년도 뉴스레터 합본호를 함께 발송해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의 연구원으로 한 단계 도약해서 연구원 회원들로 하여금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1월 19일 : 서가 제작
- 01월 20일 : 실무자 주간회의/ 서가 제작
- 01월 21일 : 서가 제작
- 01월 22일 : 도서 정리
- 01월 23일 : 도서 정리

■ 역사속의 오늘

○ 남북 관계는 단 한걸음도 전진 못하였다 - 1979. 1. 19

: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당국간에 무조건 직접대화를 갖가고 제의하였다. 이후 3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서로 다른 입장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고 압박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70년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다.

○ 여기 사람이 있다 - 2009. 1. 20

: 지금으로부터 5년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차! 1월 20일 새벽에 경찰은 전경 2개 중대 병력을 동원하여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상가 중 하나인 남일당 건물에 결집하였다. 그리고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화재원인 논란, 폭력성 논란, 여론 조작 논란, 청와대 행정관 메일 논란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이 개입되어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들이 비단 용산참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아덴만 여명 작전 - 2011. 1. 21

: 2011년 1월 15일, 한국인 8명 등 총 21명이 승선한 화학물질 운반선 삼호쥬얼리호가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이후 6일만인 21일 청해부대 UDT/SEAL 대원들의 군사 작전으로 전원 구출되었다. 구출 과정에서 인질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논란은 차치하고, 당시 석해군 선장이 선박 엔진에 물을 타 고장을 고의로 일으키는 행위, 지그재그로 운행한 행위는 작전수행에 큰 도움을 줬다. 석해군 선장의 이런 모습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그릇된 행동은 비교되어 오버랩된다.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해야 됩니다! - 1990. 1. 22

: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정주도권을 상실한 노태우 정권은 내각제 개헌으로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 들였다.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직에 오르는 내각제를 통해 양김씨가 번갈아가며 대권에 오를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었다. 이로써 3당의 합당으로 새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299석 중 218석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의 정당이 되었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정당이 된 것이었다. 민주를 외치던 세력들이 독재, 군사정권(민정당)과 합당한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은 크게 바뀐 게 없다. 한국 정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부단히도 도전하고 모험을 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18 관련자 8명 기소 - 1996. 1. 23

: 이상향일 것만 같은 대동세상! 이것을 이룩한 1980년 5월의 광주! 박정희 前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 시나리오에 의해 철저히 이용되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1980년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산재해있다. 이런 현대사의 비극을 주도한 인물은 전두환, 노태우이며, 이들은 문민정부에서 진압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의 일환으로 5·18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1996.1.23. 검찰은 5·18 관련자 8명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재판결과 전두환을 사형에, 노태우를 징역 22년 6월에 처해졌다. 진실은 당장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교훈이다.